

“잊혀져가는 아쟁산조 보존·계승 진력”

“광주 전남의 전통음악이라 하면 그나마 ‘판소리’와 ‘산조’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저 창작음악에 묻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아쟁산조의 보존 및 계승’에 진력할 것입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선제 상임 및 수석단원은 제35회 ‘대구국악제’ 명인부 기악부문 대통령상(드림 국악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전국 271팀(총 27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 명인은 기악부문(아쟁)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대구시 등이 주최했으며 상금은 1000만 원.

김 명인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표현 능력이 우수하며 활대의 섬세한 강약 대비



김선제 아쟁산조 명인이 지난해 자신의 독주회 ‘아쟁산조 그 기락을 엮다’를 준비하는 장면. <김선제 제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선제 수석 ‘대구국악제’ 기악부문 대통령상 수상 ‘박종선류 아쟁산조’ 제 1호 이수자 최근 타계한 스승 존경 담은 음반 제작

로 진계면 음색 표현이 특히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36년 경력의 김 명인은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 대학 국악학과, 음악교육과 등에서 겸임 및 외래교수로 활동해왔다. 제34회 호남 예술제 국악 기악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한편, 제3회 광주국악대전 기악 일반부 문화체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목원대, 대불대, 광주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상임 및 수석단원으로 재임 중이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아쟁산조 이수자로 특히 ‘박종선류 아쟁산조’ 1호 제자로도 알려졌다.

김 명인은 “나이가 선을 넘었기에 그동안 대통령 상 심사는 몇 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정작 수상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1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로서 스승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꾸준한 경연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치열한 경연 내내 부모님과 아내가 손에 땀을 쥐며 응원해 줬던 덕분에 예선과 본선 모두 1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됐다. 후문이다.

그는 “불과 두 달 전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박종선 명인이 타계했다. 평생을 모셔 온 스승님께 ‘1호 대통령상 제자’라는 영광의 소식을 전할 수 없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을 담아 김 명인은 ‘박종선류 아쟁산조 전바탕’ 음반을 제작 중이기도 하다. 오는 6월경 발매(예정)를 앞두고 있다.



김 명인이 최근 ‘대구국악제’ 명인부에 출전해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모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공>

김 명인은 삶의 회노애락이 녹아 있는 ‘박종선류 아쟁산조’에 슬픈 성음을 버무려 낸 것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름다운 인생1·2’, 국악관현악곡 ‘회노애락’ 등을 직접 창작하는 등 작곡에도 소질을 보여 왔다. 국립남도국악원 ‘결생전’, 전북 도립국악원 ‘어메 아리랑’ 등 창작 작곡 5편을 작·편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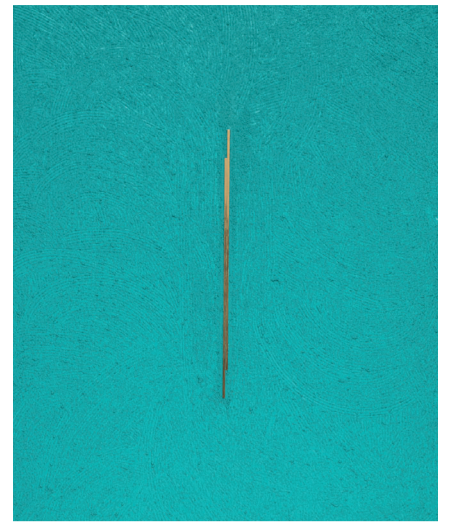
그가 가장 아끼는 창작곡은 ‘아쟁협주곡 금당’, 스승 박종선 명인의 호인 ‘금당(金堂)’에서 본뜬 작품으로 특유의 애환과 신명이 깃들여 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에서도 슬픈 애원성(哀怨聲)이 도드라지는 계면조 가락을 위주로 편곡했으며 이 밖에도 진양조, 중중모리 및 중모리, 자진모리와 우조 등이 중심을 이룬다. 박종선류에 담긴 ‘한’을 고스란히 재연하기보다 ‘반복적 연습과 해석을 통해 희비의 감정을 선율에 녹여냈다’는 게 특징이다.

김 명인은 “아쟁 연주자로 국악에 입문해 지금까지 열정을 쏟아 온 것이 오늘의 결실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좋은 연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생은 어디로 가는가 B’



‘도형의 파괴 C’

점·선·면으로 표현한 우리의 삶

성운호 초대전, 6월 2일까지 소암미술관

인간의 삶은 다채롭게 표현된다. 시와 소설, 음악과 그림, 더러는 연극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장르로도 그려진다. 어떻게 형상화되든 인간의 삶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하다.

소암미술관에서 6월 2일까지 열리는 성운호 초대전은 인간의 삶을 연관한 작품을 볼 수 있다. ‘Loop-점, 선, 면의 순환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이라는 주제는 철학적이면서 사색적이다. 추상적 이미지에 인간과 영혼을 연계해 풀어낸 색채와 도형은 다양한 해석을 요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대와 연계해 젊은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고리, 회로를 뜻하는 ‘Loop’라는 말은 연쇄, 순환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구조화하면 면이 된다. 마치 우리 삶의 여러 현상과 본질을 아우르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은 생의 본질, 인간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도 명쾌하게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양호열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과 자연의 순환을 형이상학적인 내용으

로 도식화해 자연미와 조형미를 추상적 형태로 구현해낸 성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며 “작가의 생사관은 물론 순환에 대한 사유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전했다.

‘생은 어디로 가는가 A’는 면과 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다. 단순해보이지만 작가는 그림을 매개로 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구획돼 있지만 결코 구획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는 것이 삶이기 때문과 선은 몇몇 미로처럼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삶을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지 말고 단순하게 바라보라는 의미도 투영된 듯하다. 마디로 골목에 다다르면 다른 문이 열리고, 다른 길이 있기에 지나치게 삶의 무게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형의 파괴 C’는 초록색 화면에 골드색의 미세한 금이 도드라져 있다. 무한한 공간에 드리워진 파열의 흔적은 일차적으로는 도형의 파괴를 뜻하지만 삶의 균열은 사소한 문제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은유한다.

성운호 작가는 “점에선 점으로 이어지는 선의 형상을 통해 생의 과정을 표현하고 재료인 돌기루는 사물과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생성된다”며 “색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점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잘 알려지지 않은 클래식 걸작들

피아노 듀오 라펠라, 밀하우드·볼콕 작품 연주...31일 광주예술의전당

2017년 창단한 피아노 듀오 라펠라(회장 김여진·사진)는 피아노 듀오곡 발전, 다채로운 레퍼토리 발굴에 매진하는 피아노 단체다. 이들이 그동안 관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앙상블 연주회를 펼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피아노 듀오 라펠라는 ‘5 unique Composer in classics’를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해설과 함께 소개, 피아노 음악 연구와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바흐 ‘키보드 듀엣 F장조, Op.18 6번 W.A 20’으로 막을 연다. 이어 무치오 클레멘티 곡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플랫장조, Op.12-5’,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플로베츠인의 춤’을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준다.

밀하우드 작 ‘스카리무초’는 전남대 음악학과 등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현주와 장지민이 연주한다. 볼콕 곡 ‘에텐동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도 레퍼토리에 있다.

연주자 김여진은 이화여대 피아노과 및 동 대학



원,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이현주는 전남대 음대 및 프랑스 Aulay sous bois 국립음악원 반주과 등을 졸업했다. 김여진 회장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공연이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청중, 클래식을 사랑하는 청중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클래식 듀오 라펠라의 설립 취지인 ‘음악 연구’와 ‘클래식 저변 확대’에 맞게 학구성, 대중성을 아우르는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신비롭고 이색적인 ‘남아시아의 춤’

7월 21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비탈라 사원의 벽면에 새겨진 무용수의 모습은 관능적이다. 과장된 가슴과 엉덩이는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다. 어떻게 신성한 사원에 그와 같은 부조 작품을 새겼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무용수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춤을 신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문화는 일반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면이 있다. 특히 인도 힌두사원의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조 작품들과 방글라데시의 전통춤들은 이색적인 느낌을 환기한다. 춤은 힌두문화권에서는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여겨진다.

남아시아 전통춤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아시아 문화박물관에서 오는 7월 21일까지 열리는 ‘남아시아 춤의 성소: 리미널 스페이스’가 그것.

이번 전시는 ACC가 최혜리 박사가 기획했다. 최 박사는 아시아문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연구자 방문프로그램 초빙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무용인류학자인 최 박사는 “이번 전시는 인간과 신은 물론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춤의 성소에서 남아시아 전통춤을 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13년 아시아 대서사시 관련 자료와 2023년 아시아문화박물관 연구 보고서인 남아시아 전통춤의 연구 성과 등의



‘방글라데시 칼리카치’.

(ACC 제공)

자료 등을 토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수집자일 중 춤의 성소가 포함된 합피 지역의 비루파사 사원, 라마찬드라 사원, 비탈라 사원 등을 보여준다.

남아시아 춤의 원리를 담은 경전 ‘나티아 샤프트라’와 관련된 영상도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힌두문화에서 춤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시바와 ‘나티아 샤프트라’를 초점화한다. 남아시아 춤의 원리를 담은 경전 ‘나티아 샤프트라’에 담긴 인간의 9가지 감정과 손짓 언어도 전시 이해를 돕는다.

3부의 주제는 ‘남아시아 춤의 지형도’. 인도의 8가지 고전무용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의 ‘칼리카치’, 네팔의

‘라케’, 스리랑카의 ‘캔디안 댄스’ 등 다채로운 자료가 비치돼 있다.

방글라데시 ‘칼리카치’는 화려하다. 장신구와 소품 뿐 아니라 분장을 한 무용수들의 모습도 화려하다. 그러나 춤은 정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유려해 보인다. 절대자를 향한 손 동작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경외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그동안 ACC가 지속해온 남아시아 문화 관련 성과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남아시아 각국 춤을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 등을 매개로 들여다보면 훨씬 흥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고문인회 ‘전남여고문학’ 10호 발간

전남여고문인회에서 펴내는 문집 ‘전남여고문학’ 10호가 발간됐다.

문집에는 시와 시조, 동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이 수록돼 있다.

먼저 시 부문에는 김경숙, 김소정, 김수목, 김애순, 김경희, 김화연, 박영자, 홍영숙 등의 작품과 시조 부문에는 권현영, 김화정, 이강우 등의 작품이 게재돼 있다.

동시 부문에는 김옥애의 ‘꽃 나눔’이 수필 부문에는 김경옥, 김형미, 송중숙, 이미란, 조성자, 조혜숙, 최은정의 작품이, 소설 부문에는 민근애, 서용좌 작가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준회원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박유민, 조명주의 시와 이고은의 동화가 소개됐다.

제6회 전남여고 개교기념 백일장 수상 작품도 독자들을 만난다. 대상을 수상한 정민주의 ‘소년과 나무’ 등을 비롯해 금상시(김나예-겨울 다음.), 금상 산문(설가



현-그대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등은 독자들에게 학생들의 풋풋한 감성과 사물을 보는 신선한 감각을 선사한다. 소설가인 이

미란 회장은 “우리는 ‘전남여고’라는 장소성과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함께하게 됐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은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며 “나의 감수성과 인식의 지평이 오롯이 드러나는 글은 나의 문화화된 인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남여고문학’을 통해 서로의 글을 읽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서로를 읽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후원 ‘광주학생 미술대회’ 성료

광주신세계가 후원한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초·중·고교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광주학생 미술대전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사)광주미술관회가 공동주최한 미술대회로, 지역 미술인재들에게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5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시립미술관에서 ‘2024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영희 광주미술관회 이사장 및 대회 참가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미술대전은 많은 지역 미술 꿈나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접수용 온라인으로 받았다. 그 결과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337명이 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상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은 실물을 직접 접수받고, 전문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부 저학년 15점, 초등부 고학년 15점, 중등부 15점, 고등부 15점 등 총 6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오는 31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자리를 옮겨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후원한 2024 광주학생 미술대전에 큰 관심을 보내주시는 광주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광주신세계는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우리 지역 미술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